



아버지와 특허



김배훈

현 (주)영국전자 대표이사
2003년 특허성공사례발표회 (전국 1등)
2003년 특허청 신지식인 선정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집이 잘 살았다고 한다.(사진으로만 확인 가능했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세가 기울어, 나의 어린시절 기억은 인간사 힘들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것 같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미국 RCA사에서 TV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와 1950년대 후반에는 TV수리회사를 만들어 고객대작들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한다. 1960년대초 제조업으로 발돋움하려 할 때 “산업합리화 조치법”이 발동되어 민수용 가전제품을 일부기업에 독점 생산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TV제조는 순식간에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장동에 있던 우리집의 건너방과 마당을 일부 개조, 가내공장을 만들어 지인들의 구전을 통해 TV 살 사람을 접촉하여 한 대씩 파는 등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 2남 2녀에게 집에서 TV 만드는 사실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참 후에나 알 수 있었다.

공장이 집이다보니 학교에 갔다오면 아저씨들 틈에서 납땜작업과 쉬운 배선작업 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어 갔으며, 이로인해 불만은 커져만 갔다. TV가 팔리는 날이 곧 우리집 월급날이 되어버렸다. 구매자가 오는 날에는 하루종일 호마이카 나무목 무늬에 슬라이드 문까지 갖춘 TV를 광내는 일이 내 몫이 되어버렸다.

당시 내 어린 눈으로 볼 때 예술의 경지에 이른 아버지의 전자기술(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달인)과 힘들고 불안한 우리집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느꼈다. “나는 기술자가 되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기술은 장사꾼에 먹잇감일 뿐”, “허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늘 되뇌이게

되었다.

그후 70년대 중반 즈음 아버지는 TV를 포기하시고 CCTV 카메라 분야로 전향하셨다. 아버지는 일본강점기 때 공부를 하셔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셨다. 당시 일본의 동경 아끼아바라에 가서서 카메라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한번 PCB 개발에 들어가면 몇 달간 피눈물나는 연구를 하시는게 다반사였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작업하시는 모습에 같이 집중하며 여러 가지 조수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개발된 CCTV 카메라 및 콘트롤러는 70년도 후반부터 판매가 잘되어나가는 듯 하였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이 또 생겨나서 중소기업의 업종마다 조합이 결성되어 CCTV 시스템 계약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업계는 기술보다 영업위주로 재편되어 오로지 영업을 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풍토가 되어버렸다.

나는 학업과 가업을 병행하며 회사가 잘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으나, 아버지의 주름은 깊어만가고 시름은 늘어만 갔다. 아직 학생인 나를 보시면서 “네 누나가 아들이었으면...” 하는 말씀을 가끔 하실 때에는 왠지 모를 답답함과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였다. 그 당시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잿빛이었다고나 할까?

학교를 졸업하고 서둘러 군대를 갔다. 나의 억눌렀던 청년의 현실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잠시, 늘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그늘이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나에게 후회의 아픔으로 다가옴을 느꼈다.

30개월 내내, 제대하면 아버지의 평생 산물인 회사를 위해 “빠가 부서져라 일해야지!” 하는 각오가 점점 다져지고 있었다.

제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만든 제품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돈을 주지않는 업체들에게 외상대를 받아내는 일이었다.(군인정신을 발휘하여)

10년간을 아버지도 나도 열심히 일했다.

아주 조금씩 회사는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제법 회사의 틀이 갖추어지고 있을 즈음, 어언 아버지의 연세는 70을 넘기셨다. 고향인 춘천에 지주가 계셨는데 산림청 출신의 친구분과 얘기를 하던 중 카메라를 이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감지하는 시스템을 착안하시어 체계 아이디어를 주셨다.

당시 나는 지인으로부터 특허변리사 한 분을 소개받아 특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1996년 나의 1호 특허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산불관리 시스템”이다. 공교롭게도 그해 고성산불이 났었고 산불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릉수목원에 시범설치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었으며, CCTV 시스템 전문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10여 년간 영상에 관련된 산업용, 의료용, 군사용 등 영상시스템 특허를 꾸준히 만들었고 2006년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자 10여 년간의 연구개발 및 특허권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은 전년대비 2.5배가량 성장하여 국내 CCTV 시스템 프로젝트업계 선두가 되었으며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해외 특허의 로열티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는 고향인 춘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신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에 이용하는 형태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즉시 돈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국가정책적인 독점권은 가까이 있으며 특허를 이용한 독점권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산업화의 역사가 무척 짧다. 그 짧은 기간동안 대기업을 만들고 스타 중견기업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국가의 정책들이 생겨나고 사라졌다. 그래서 조국 근대화를 빨리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허나 특허를 사업화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상당한 기간동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에서 양산되는 특허와 개인발명가들의 업종을 넘나드는 특허, 그리고 중소기업이 먹고살기 위한 특허는 구분되어 적정 비율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아직 아마존 밀림지대와 같은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특허사업화 비율과 해외로열티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국가경제 생태계에 좋은 먹이사슬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허는 아버지와 나를 이어주는 어둠 속의 희미한 햇빛이었다.